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요한 1, 29- 30)



〈세례자 요한〉, 티치아노(Tiziano Vecellio), 1540년경, 아카데미 미술관, 베네치아, 이탈리아

[제1독서] 이사야 49,3,5-6

[화답송] 시편 40(39),2ㄱㄴ과 4ㄱㄴ.7-8ㄱㄴ.8ㄷ-9.10
(◎ 8ㄴ과 9ㄱ 참조)

◎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주님 보소서 당신 뜻을 이루려 제가 왔나이다

- 주님께 바라고 또 바랐더니, 나를 굽어보셨네. 새로운 노래, 하느님께 드리는 찬양을 내 입에 담아 주셨네. ◎
- 당신은 희생과 제물을 즐기지 않으시고, 도리어 저의 귀를 열어 주셨나이다. 번제물과 속죄 제물을 바라지 않으셨나이다. 제가 아뢰었나이다. “보소서, 제가 왔나이다.” ◎
- 두루마리에 저의 일이 적혀 있나이다. 주 하느님, 저는 당신 뜻 즐겨 이루나이다. 당신 가르침 제 가슴속에 새겨져 있나이다. ◎
- 저는 큰 모임에서 정의를 선포하나이다. 보소서, 제 입술 다물지 않음을. 주님, 당신은 아시나이다. ◎

[제2독서] 1코린 1,1-3

[복음 환호송]

- ◎ 알렐루야.
- 말씀이 사람이 되시어 우리 가운데 사셨네. 그분은 당신을 받아들이는 모든 이를 하느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네.◎

[복음] 요한 1,29-34

- [성가 안내]
- 입당성가: [25] 사랑의 하느님
 - 봉헌성가: [342] 제물 드리니
[219] 주여 몸과 맘 다 바치오니
 - 성체성가: [178] 성체 앞에
[164] 떡과 술의 형상에
 - 파견성가: [29] 주 예수 따르기로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그때에 ²⁹ 요한은 예수님께서 자기 쪽으로 오시는 것을 보고 말하였다. “보라, 세상의 죄를 없애시는 하느님의 어린양이시다.

³⁰ 저분은, ‘내 뒤에 한 분이 오시는데, 내가 나기 전부터 계셨기에 나보다 앞서신 분이시다.’ 하고 내가 전에 말한 분이시다.

³¹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준 것은, 저분께서 이스라엘에 알려지시게 하려는 것이었다.”

³² 요한은 또 증언하였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³³ 나도 저분을 알지 못하였다. 그러나 물로 세례를 주라고 나를 보내신 그분께서 나에게 일러 주셨다. ‘성령이 내려와 어떤 분 위에 머무르는 것을 네가 볼 터인데, 바로 그분이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이다.’

³⁴ 과연 나는 보았다. 그래서 저분이 하느님의 아드님이시라고 내가 증언하였다.”

John the Baptist saw Jesus coming toward him and said, “Behold, the Lamb of God, who takes away the sin of the world.

He is the one of whom I said, ‘A man is coming after me who ranks ahead of me because he existed before me.’

I did not know him, but the reason why I came baptizing with water was that he might be made known to Israel.”

John testified further, saying,

“I saw the Spirit come down like a dove from heaven and remain upon him.

I did not know him, but the one who sent me to baptize with water told me, ‘On whomever you see the Spirit come down and remain, he is the one who will baptize with the Holy Spirit.’

Now I have seen and testified that he is the Son of God.”

묵상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그분에게 향할 때...”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하느님의 아들로 알아볼 수 있는 은혜를 받았습니다. 하느님께서 구세주를 위해 새로운 길을 준비하는 요한에게 특별한 계시를 주셨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세례를 주었을 때 일어난 거룩한 표지에 대해서 증언합니다. “나는 성령께서 비둘기처럼 하늘에서 내려오시어 저분 위에 머무르시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을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 분’으로 소개합니다.

세례자 요한은 세례의 은총과 효과를 직접 눈으로 확인한 예언자입니다. 성령의 세례는 완전한 정화의 은총과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은총을 가져다줍니다. 이것은 우리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마태 28,19-20 참조) 세례를 받을 때, 우리에게 실제로 이루어진 현상입니다. 따라서 우리도 세례자 요한처럼

하느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은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몸소, 우리가 하느님의 자녀임을 우리의 영에게 증언해 주십니다”(로마 8,16).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의 마음과 영혼 안에 움직이고 계시는 성령을 망각합니다. ‘영’은 영혼의 상충부이며 하느님을 감지하는 장소입니다. 성령께서는 마음의 가장 깊은 곳에서 움직이고 계시므로 그분을 만나기 위해 우리는 잠심(潛心)하여야 합니다. 우리의 온 마음과 정신을 그분에게 향하여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느님의 자녀로서 받은 축복이 얼마나 큰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신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알아들을 수 있습니다.

(류한영 베드로 신부)



**In Nomine Patris , Et Filli , Et Spiritus Sancti, Amen.
Dominus vobiscum. Et cum spiritu tuo.**

무슨 말인지 아시나요? 아마 우리가 50년 정도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당연히 알고 있을, 아니 입에 배어있을 문장입니다.

저 라틴어 문장은 미사의 시작 부분 곧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와 함께.’입니다.

50여년 전부터 신앙생활을 했다면 우리와는 전혀 상관없다고 여겨지는 이 라틴어 문장이 왜 입에 배어 있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제2차 바티칸 공의회와 관련이 있습니다. 1962년부터 1965년까지 있었던 바티칸 공의회 이후 가톨릭교회의 많은 부분이 달라졌기 때문입니다. 그 가운데 평신도들에게 가장 관련 있는 것은 바로 미사입니다.

지금도 오래된 성당에 가면 제대가 2개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미사를 봉헌하는 제대가 있고, 그 뒤로 벽에 붙어있는 제대가 또 하나 있습니다. 미사의 역사를 간직하기 위해 이제는 사용하지 않는 제대를 그대로 남겨두고 있는 것입니다.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전에는 사제가 벽에 붙은 제대에서 라틴어로 미사를 봉헌했습니다. 그래서 당연히 신자들은 사제와 주고받는 말들을 뜻은 잘 알지 못할지라도 외우고 있었던 것입니다.

저도 그 시대를 살지 못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지만 어른 신부님들이나 오래된 구교 신자들의 말을 들어보면 복사를 하기 위해서는 미사와 관련된 라틴어 시험을 봤다고 합니다. 신자들과 주고받는 말들에 대한 대답을 큰 소리로 해야 했고, 또 성찬의 전례에서 종을 치는 타이밍 등을 알고 있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지금은 하지 말라고 권고하는 미사 중의 묵주기도도 그 당시에 행해졌습니다. 어차피 신부님이 하고 있는 미사를 알아듣고 따라갈 수 없으니 미사를 봉헌하고 있는 성당에 앉아 혼자 묵주기도를 했던 것입니다. 한마디로 신자들은 자신의 의무를 다하기 위해, 성체를 받아 모시기 위해 미사에는 참여하고 있지만 정작 어떤 내용을 말하는지 알 수 없어 수동적인 입장을 취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제2차 바티칸 공의회 이후 많은 것들이 변했습니다. 사제는 신자들을 향하여 자국어로 미사를 봉헌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들은 더 이상 수동적인 입장이 아닌 능동적인 자세로 미사에 참여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미사



교황 성 요한 23세의 ‘평정의 십계명’과 함께
놓아두며 살기

요한네스 하스 저음
서명옥 옮김
바오로딸 출판

경문들을 함께 들으며 하느님께서 들려주시는 사랑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모두에게 큰 선물이 된 제2차 바티칸 공의회는 어떻게 시작된 것일까요? 그것은 지난 2014년 4월 27일 시성되신 성 요한 23세 교황님에 의해서였습니다. 사람들은 이미 늙은 나이에 교황이 되신 요한 23세였기에 별 다른 일 없이 임기가 끝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한 23세는 시대의 징표를 읽고 교황이 된 직후 공의회를 준비했습니다. 결국 62년부터 65년까지 회개와 쇠신을 위한 공의회가 있었고, 지금의 교회가 만들어졌습니다. 5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공의회 정신을 다 살지 못한다는 평가가 많은 걸 보면 요한 23세 교황님께서 정말 시대를 앞서 가신 분이라는 것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의 심장이 멎었을 때,/ 그들이/ 대성당 등근 지붕 아래/
목자 잃은 슬픔에 잠겨있는 백성 앞에/ 그를 뉘어놓았을 때,
우리는 보았네,/ 주님의 시계 위에서/ 사랑의 시간을
가리키던,/ 이제는 움직이지 않는 시곗바늘인 그를.

책상에 놓여진 지구본을 들여다보고 온 나라를 살피며
그들을 위해 늘 기도하셨던, ‘선하신 교황(Papa
Buono)’이었으며, ‘모든 이의 형제’라는 별명을 가진 성 요한
23세 교황이 선종하자 오스트리아의 시인인 크리스티네
부스타가 슬퍼하며 지은 시입니다.

요한 23세는 하느님을 믿었고 그 믿음을 사람들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의 믿음의 열매를 한 단어로 표현하면 ‘평정’입니다. 그는 “오늘 하루 나는 ~를 하겠다.”는 식으로 ‘평정의 십계명’을 만들어 일상에서 ‘놓아두며’ 사는 것이 어떻게 가능한지 보여주었습니다. 우리도 요한 23세와 같이 ‘놓아두며’ 살기 위해 노력해 보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요한네스 하스’가 지은 ‘놓아두며 살기’라는 얇은 책을 통해 ‘평정의 십계명’을 만날 수 있습니다.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무언가를 하겠다. 혹시 불쾌하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겠다.”,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호의를 믿겠다.” 등 열 가지 계명을 통해 하루하루 하느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격이, 인성이 하루아침에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건과 상황 속에서도 끊임없는 노력을 통해 조금씩 조금씩 변화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님의 제자로 합당히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도 성 요한 23세 교황처럼 ‘평정의 십계명’을 우리 마음 한 편에 새기고 묵묵히 생활해봅시다. 그럴 때 우리도 기쁨에 찬 하느님 사랑의 길, 친절하고 이웃 사랑의 길, 삶 한가운데서 함께하시는 하느님의 길을 안내하던 이정표였던 그분을 따라 하느님의 나라로 향해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요한 23세의 평정의 십계명

- 1 오늘 하루 나는 내 삶의 문제를 한꺼번에 해결하려 들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기 위해 노력하겠다.
- 2 나는 행동에 세심한 주의를 기울이겠다. 품위 있게 행동하고 아무도 비판하지 않으며 오직 나 자신만을 비판하고 바로잡겠다.
- 3 나는 내가 행복하기 위해 창조되었고, 다른 이들을 위해서뿐 아니라 이 세상을 위해서도 그렇게 창조되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행복하게 지내겠다.
- 4 나는 상황이 내가 바라는 대로 맞춰지기를 바라지 않고 상황에 나를 맞추도록 하겠다.

- 5 나는 내게 주어진 시간 가운데 10분만이라도 좋은 책을 읽는 데 쓰겠다. 육신을 위해 음식이 필요하듯 영혼을 위해 건전한 독서는 꼭 필요하다.
- 6 나는 착한 일 한 가지를 하겠다. 그리고 그것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겠다.
- 7 나는 마음이 내키지 않는 무언가를 하겠다. 혹시 불쾌하더라도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도록 조심하겠다.
- 8 나는 명확한 계획을 세우겠다. 지키지 못할 수도 있겠지만 그래도 반드시 세우겠다. 그리고 ‘조급함’과 ‘우유부단함’이라는 두 가지 악을 조심하겠다.
- 9 나는 상황이 어떻든지 하느님의 자애로운 섭리가 마치 세상에 나 말고는 아무도 없는 것처럼 나를 돌보고 계신다는 것을 굳게 믿겠다.
- 10 나는 아무 걱정도 하지 않겠다. 아름다운 모든 것에 기뻐하고, 두려움 없이 하느님의 호의를 믿겠다. 선을 행하라고 내게 주신 시간은 12시간 뿐이다. 평생 쉽 없이 선을 행해야 한다고 생각하면 그나마 선을 행해야겠다는 용기마저 잃게 될 것이다.

교황, 부모들에게 자녀 신앙교육 당부

프란치스코 교황이 신자 부모들에게, 자녀들이 하느님께 의탁할 수 있도록 신앙 교육을 해달라고 당부했다.

교황은 1월 8일 시스티나 경당에서 주님 세례 축일(1월 9일) 미사를 주례하고 28명의 아이들에게 세례를 줬다. 교황은 강론을 통해 신앙 전수의 중요성을 되새기고, 부모들은 자녀 신앙교육이라는 막중한 책임에 최선을 다해 달라고 강조했다.

교황은 “신앙은 주일마다 미사에 가서 ‘신경’을 되풀이하는 것만이 아니라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하느님께 의탁하는 것”이라면서 “이 점을 자녀들에게 잘 가르쳐야 할 것”이라고 조언했다. 이어 “여러분은 아이들의 신앙을 키워주고 보호하며, 증거의 삶을 살도록 이끌어야 한다”고 덧붙였다.(가톨릭신문 2017년 1월 15일자)

구역 임원 교육



2017년도 첫 번째 구역 임원 교육이 지난 8일(일) 친교실에서 있었다. 44명의 구역 임원들이 참석한 가운데, 주님의 기도로 시작된 이날 교육에서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는 마태오 복음 말씀 중 “동방박사의 방문” (마태 2,1-12)을 설명하며 우리의 인생 여정은 주님께로 나아가는 여정이라고 강조했다. 이날 교육에서는 2017년 신입 구역 봉사자들의 소개가 있었으며 봉사자들은 한 해 동안 자신에게 주어진 봉사자의 소명을 열심히 할 것을 다짐했다.

단체장 회의



지난 8일(일) 10시 미사 후 2017년도 첫 단체장 회의가 친교실에서 열렸다. 백인현 주임 신부는 “바로 오늘입니다” 라는 주제 안에서 신자들에게 한 순간, 매일 매일을 소중히 여기고 ‘오늘’의 주인공이 되라고 당부했다.

신·구 회장단의 인사에 이어 단체별 행사 결과 및 계획 등을 발표했으며, 2017년에는 각 단체의 회원들이 활발히 참여함으로써 더욱 더 활성화되는 단체가 될 것을 다짐했다.

꼬미시움 월례회의



본당의 대표적 사도직 단체인 레지오 마리아의 2017년 1월 꼬미시움(단장 김국 스테파노) 월례회의가 지난 8일(일) 오후 1시 친교실에서 43명의 간부들이 참석한 가운데 있었다. 묵주 기도도에 이어 상급 평의회 소식, 사업 보고, 공지 사항 등의 순으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는 레지오 피정(1월 27일-1월 29일), 2017년 PPC(그리스도를 위한 외지 순방 활동) 등록 마감, 2월 레지오 간부 교육 및 주임 신부님 은경축 영적 선물에 대해 논의했다. 아울러 새해를 맞아 가두선교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을 다짐했다.

파티마 세계사도직

성모님과 함께하는 새해 맞이 친교



파티마 세계 사도직 회원들과 첫토요 신심 참가자들은 지난 7일(토) 첫토요일 성모신심 기도와 미사를 봉헌하고, 성모님과 함께하는 새해 맞이 친교 시간을 가졌다. 네 명의 자녀를 포함해 23명이 참석한 행사는 저녁 8시 30분부터 약 2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시작 성가와 기도, 이기열 콜베 부회장의 건배 제의가 있는 뒤 음식을 나누며 친교 시간을 가졌다. 백인현 주임 신부와 성원경 보좌 신부가 참석하여 참석자들을 강복하며 성모님께 대한 올바른 신심에 대해 좋은 말씀을 전해주었다.

파티마 회원이 된 후 변화된 신앙 생활에 대해 서로의 체험을 나누는 시간은 재미와 눈물이 함께 하는 감동의 시간이었다. 일 년 365일 동안 매일 미사를 드린다는 노부부의 성체 사랑은 후배 신앙인들에게 좋은 모범이 되었고, 중년을 넘어선 선배들은 신앙을 찾으려 노력하는 후배들의 얘기를 기쁜 마음으로 들어 주었다. 참가자들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감사에 대해 깊은 대화를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었다고 전했다.

Altar servers' Indoor Field Day

Field Day is always a great way to bring back out smile and cheer! St. Paul Chung Altar servers held their first Indoor Field Day on December 28.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Reconciliation—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2 Corinthians 5:14-20)



At least once a year, Christians are reminded of Jesus' prayer for his disciples that “they may be one so that the world may believe” (see John 17.21). Hearts are touched and Christians come together to pray for their unity. Congregations and parishes all over the world exchange preachers or arrange special ecumenical celebrations and prayer services. The event that touches off this special experience is the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Traditionally the week of prayer is celebrated between 18-25 January, between the feasts of St Peter and St Paul. In the southern hemisphere, where January is a vacation time, churches often find other days to celebrate it, for example around Pentecost, which is also a symbolic date for unity.

The 2017 Week of Prayer for Christian Unity has the theme “Reconciliation—The Love of Christ Compels Us” (2 Corinthians 5:14-20). In a world marked by diversity in language and culture, we express our Christian faith in diverse ways.

During this week we are called to celebrate this diversity and be faithful to Christ's call for the unity of his Church.

ANNOUNCEMENT

1. 2017 WorkCamp



- **When** : June 24-June 30, 2017
- **Where** : Fredericksburg, VA
- **Who** : 9th to 12th graders
- **Register** : Jan 8-Feb 5 at Cafeteria
Application forms with **\$50 fee** is required at the time of registration.
- **Cost** : \$475
- Please contact **Jin H. Lim** (703)261-5710 or **Yoonhee Kim** (703)282-4733 for more information.

2. No Sunday School

- **When** : Jan 15 (Martin Luther King Jr. Day)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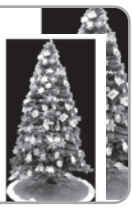
- 1 하상회 정기모임**
• 일시: 1월 15일(일) 오전 11:30 (B-1,2)
- 2 안나회 정기 모임**
• 일시: 1월 15일(일) 오전 11:30 (A-1,2,3,4)
- 3 꾸리아 월례회의**
• 일시: 1월 15일(일) 오전 11:40 하상관 (B-4,5)
- 4 베드로회 월례회**
• 일시: 1월 15일(일) 오후 1시 (B-1,2)
- 5 주일학교 임원회의**
• 일시: 1월 15일(일) 오후 1시 (교무실)
- 6 불우이웃 돕기 동전 분류 작업**
• 주남공헌대축일에 봉헌해 주신 동전 저금통 분류 작업 및 정리를 도와주시실 봉사자를 기다립니다. 교우분들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일시: 1월 15일(일) 10시 미사 후 (친교실, A-1,2)
- 7 사도임원회의**
• 일시: 1월 20일(금) 오후 8시 (B-1,2)
- 8 2017년 사도 임원진 인사**
• 일시: 1월 22일(일) 10시 미사 중
• 2017년에 봉사할 사도임원 소개 시간이 있으니 사도임원(부장/차장)은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 9 바오로 정기총회**
• 일시: 1월 22일(일) 오후 6시(친교실)
• 문의: 이성근 예레미야 (703) 627-1932
- 10 요한회 월례회의**
• 일시: 1월 22일(일)
• 대상: 50대 형제 자매
• 문의: 배석범 알베르도 (703) 477-3491
- 11 교육부 세미나**
• 일시: 1월 22일(일) 오전 11:30 (친교실, A-1,2)
• 주제: 텃밭 가꾸기- 명품 고풍차와 파종 실습 및 씨앗 무상 제공
• 강사: 원응식 요셉(농학박사)
• 문의: 윤재원 베드로 (215) 510-7513
- 12 1월 정기 울트라야**
• 일시: 1월 27일(금) 친교실 (B-1,2)
• 문의: 광노덕 도미니교 (703)608-9664

사무실 휴무: 1월 16일 (Martin Luther King Jr. Day)

- 13 제76차 예비 신자 모집**
• 입학식: 3월 5일(일)
• 등록: 매 주일 친교실 선교 테이블 (8시, 10시 미사 후)
• 문의: 유재운 요셉 (703) 628-9314
- 14 조상들을 위한 설 합동 위령미사**
• 일시: 1월 28일(토) 오후 7:30
• 미사 신청: 사무실
- 15 성가대 봉사자 모집**
• 8시, 10시, 장례미사 성가대원을 모집합니다.
• 신청: 사무실
- 16 베드민턴부 모임 안내**
• 매주 수요일, 금요일 오후 7시-10시 (하상관 체육관)
• 준비물: 개인 라켓 (초보자도 환영)
• 문의: 김우성 프란치스코 (703) 999-2136
- 17 2017년 March for Life(생명 수호 행진)**
• 인간 생명을 존중하고 보호하기 위해 매년 실시되는 행사로써 2017년에는 1월 27일(금) 내셔널 몰에서 U.S. Supreme Court 까지 행진을 실시합니다. 행진에 참여하실 분들은 미사 후 친교실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1월 27일(금)
• 참석인원 : 선착순 55명
• 참가 신청 : 1월 1일부터 4주간 동안 접수를 받습니다.
• 문의 : 조정근 형제 (703)978-4005
- 18 세계 결혼 기념일 혼인 갱신식**
• 세계 결혼 기념일을 맞이하여 혼인 갱신식을 합니다. 결혼 25주년, 50주년을 맞으신 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바랍니다.
• 일시: 2017년 2월 12일 10시 미사 중
• 신청 및 문의: 김 아놀드, 레지나 부부 (703) 477-2446
- 19 2017 알링턴 교구 WorkCamp**
• 일정: 2017년 6월 24일 - 6월 30일
• 장소: Fredericksburg, VA
• 대상: 9학년 - 12학년
• 참가비: \$475 (등록비 \$50 선납)
• 신청: 1월 8일 - 2월 5일 친교실

원주 까리따스 Giving Tree

지난 성탄 시기에 있었던 Giving Tree 를 ! \$17,520 이 모금되었습니다. 아동들에게 따뜻한 사랑의 선물을 보낼 수 있도록 도와주신 모든 교우분들께 감사드립니다.



금주의 행사

날짜	축일	행사 및 내용 (시간 및 장소)
1월 15일(일)	연중 제2주일	안나회(11:30, A-1,2,3,4), 하상회(11:30, B-3,4), 꾸리아(11:40, 하상관 B-4,5), 베드로회(오후 1시, B-1,2), 주일학교 임원회의(오후 1시, 교무실)
16일(월)	연중 제2주간	아침 미사 (6:00, 성당)
17일(화)	성 안토니오 아빠스 기념일	레지오 마리아 (오후 8시, 친교실), 성경기도회 (오후 8시, 도서관)
18일(수)	연중 제2주간 수요일	레지오 마리아 (오전 9:30, 친교실), 평일 미사 (오전 11시)
19일(목)	연중 제2주간 목요일	아침 미사 (6:00, 성당)
20일(금)	연중 제2주간 금요일	병자 영성체, 평일 미사 (오후 7:30), 사도 임원회(오후8시, B-1,2)
21일(토)	성녀 아녜스 동정 순교자 기념일	아침 미사 (7:00, 성당), 레지오 마리아 (9:30, 친교실)
22일(일)	연중 제3주일	요한회(11:30, B-3), 교육부 세미나(11:30, A-1,2), K of C(11:30-B1,2), 바오로회(오후 6시, 친교실)

백인현 안드레아 주임 신부님
사제서품 25주년 은경축

- 일시: 1월 29일(일) 8시, 10시 미사 중 (영적선물과 꽃다발 증정, 축하)
- 미사 후 친교실에서 대친교가 있습니다.
- 백인현 신부님의 사제서품 25주년(은경축)을 축하드리며, 신부님의 영육간 건강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KACM TV 하이라이트 Cox Ch.30, 830 Fios Ch. 30

1월 15일 (일) 자정 12:00-1:00,
1월 19일 (목) 오후 5:00-6:00,
1월 20일 (금) 저녁 11:00-12:00

- **역사 드라마/ 강완숙 골롬바** : 수배령이 내려진 주문모 신부를 목숨 걸고 보호한 강완숙 골롬바. 한국 최초의 여성 순교자의 삶을 그린 역사극 (2편)
- **드라마 "따로, 또 같이"** : 가정과 성당에서 꼬이기만 하는 일들. 권태기와 갈등, 어떻게 풀어야 하나 (6화)

교황님의 1월 기도지향

선교 그리스도인의 일치

모든 그리스도인이 주님의 가르침에 충실하여 기도와 형제애로 교회의 온전한 친교를 다시 이루도록 노력하고 인류 앞에 놓인 도전에 함께 맞서도록 기도합니다.

지난 주 우리들의 정성

2017년 1월 8일 (주님 공헌 대축일)

주일헌금	\$ 7,736.33
교무금	\$ 9,770.00
교무금(신용카드)	\$ 1,070.00
특별헌금	\$ 0.00
2차 헌금	\$ 0.00
합계	\$ 18,576.33

♥ 주일헌금 및 2차 헌금의 세금공제를 원하시는 분은 세금공제 확인용 봉헌예를 봉투를 사용해 주십시오.

기도해주세요

- ♥ **병중에 계신분**
고상균(스테파노), 김경화, 은규희(발바라), Thomas Byrne, 홍종범(시몬), 한중분(루시아), 정맹금(테레사), 김영식(요셉), 박상연(라파엘), 정중희(발바라), 김만복(아녜스), Dan Cho, 전원후(마리아), 김태명(시몬), 신순영, 박제중(요셉), 김용구(베네딕), 송영하(요한), 김영자(세레나), 이천우(베다), 이창덕(비오), 김영식(베드로), 양소자(루시아), 이숙(소후 테레사), 백유미(세실리아)

- ♥ **군복무자**
강로린(루피나), 김도유(유지니오), 김동진(마태오), 신동우(미카엘), 안성호(요한), 구본인(론지노), 이술(루시아), 이재윤(안토니오 파도바), 임현석(아비도), 손범기(펠릭스), 윤벽참(프란치스코), 장동건(스테파노), 장동호(다니엘), 주기환(필립), 최홍집(엔토니), 심용천(요한), 장동길(피터), 전성호(세례자 요한), 최용성(프란치스코), 고미첼(미카엘라), 에스더 정(세레나), 신재훈(대건안드레아), 정수지(요안나), 권범수(요한), 임철민(요셉), 김승겸(안드레아), 김성우(비오)
※ 기도를 원하시는 분은 사무실에 신청해 주십시오.

RE/MAX Gateway 부동산 www.Rachael Kim.com 레이첼 김(아네스) 703-652-5790 Cell. 703-774-8945	정재민 치과 센터빌스퀘어(Centreville Square) 정재민(미카엘) DMD, PC 703-825-1191	Pohanka Acura New / Used Cars Yong Kim (미카엘) 847-867-1730 Cell. 571-445-0788	허진 변호사 Law Office Jason Huh 민사, 형사, 소송재판 전문 허진(세바스찬) 703-288-1515	엘리사벳 백화점 화장품, 건강식품, 이불, 옷, 신발 마루 깔아드림(무료견적) 배 엘리사벳 703-508-7743
마이키즈 소아/청소년과 mykidspediatricians.com 정소연(크리스티나) 703-865-5437	영스 헬스케어 간병사, 간호사, 물리치료 서비스 김경해 (아네스) 703-647-0292	김돈현 가정의학전문 Fairfax Family Medicine Center Michael D. Kim, MD 703-591-4100	주택용자, 재용자 EverBank 안윤민 (바실리오) 571-275-0691	문스 자동차 정비 VA 인스펙션 오일체인지, 각종 자동차정비 이병일 (다니엘) 703-266-1983
안아픈 세상(양방/한방) 교통사고보험 인정 병원 척추신경과, 치료맞사지과 한병나라 이혁찬 한의원 703-658-5100	시티 종합 보험 자동차, 주택, 비즈니스, 생명 김수연 (엘리사벳) 703-352-1073	Lee's Heating & Air 히팅 & 에어컨 이일우 (베드로) 703-675-8009	소아전문치과 Pediatric Dental Care Dr. John Han (한장엽) Fairfax 703-383-3434 Springfield 703-992-7100	보험/은퇴연금 이경태 요셉 생명보험, 은퇴연금 학자금, 장기 간호 보험 갖고 있는 플랜 점검 가능 703-785-4494
시원 냉난방 에어컨, 히팅, 플러밍 703-362-7770	민기호 내과 John Min M.D. 703-462-8711	Euromotor Cars Mercedes-Benz 유스티노 한 703-855-8710	스카이 학원 전 학년 전문 SAT, 영어, 수학 가을학기 등록 중, 조기등록 혜택 김영란 (아네스) 703-867-1144	재노 오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재노 오 (로사) 703-772-7275
한미 소독 가정집, 상점 (STORE) 하홍엽 (요한) 703-451-3322	케어피플 & 호스피스 간병사, 방문간호, 물리치료 이선애 (엘리사벳) (O) 571-297-4747 (C) 240-413-0365	척추사랑 교통사고/척추신경/손, 발 통증 병원 Dr. 이형운 (마르코) 센터빌, 챌틸리 703-429-4622 락빌 MD 301-231-7588	McLean Psychiatric Services 정신과 치료와 상담 Richard Kim, M.D. 703-336-2406	스킨케어 소유 스킨케어, 바디, 네일 반 영구 눈썹, 속눈썹 연장 703-992-7930
하얀나무치과 www.whitetreedental.com 박경욱 (크리스) D.D.S. 703-726-8804	F teck connection, LLC POS(cash register), CCTV, Network, Bank Card Services 마르티노 손 540-429-1399	와니 건축 In & Out 핸드맨 Service 부엌, 화장실, 텍 권태완 (빈센트) 571-331-6811	마태오 흥 종합보험 메디케어, 오바마케어 703-969-8956 (마태오) 703-969-8954 (소피아)	골프 레슨 성인레슨 및 월포인트 가능 초보, 학생, 여성 골퍼 환영 레지나 678-800-3451
정수정 부동산 Keller Williams Realty 정수정 (안나) 703-855-8575	그레이스 홈 케어 노인/중증 환자/산모 케어/ 물리치료 전문 간호 식, 박사 운영중 대표 김아네스, RN 703-865-7370	영스 히팅 에어컨, 히팅 703-728-3160	찬들리 HYUNDAI 김경태(바오로) 571-314-3467	CORE 물리치료 통증, 재활치료 전문 (메디케어) 김우기(안드레아), DPT 703-865-6455
Penta Olympic Fencing Club 펜싱 클럽 이영찬(베드로) 703-207-1059 Cell.703-801-3924	ASSA 종합보험 최클라라 오바마 건강보험 카이저 메디케어 도와드립니다 703-649-2110	5분 도정 즉석 도정미 판매(당일 도정) 현미, 5분도미, 백미 www.JCProvision2016.com 703-366-3286	임경옥 부동산 Gangnam Realty & Management Group, LLC 703-944-1337	SKY FARM 애플래치안 산맥에서 채취한 천중 산삼 판매 (VA 산삼 공인 딜러) Wildginsengsale.blogspot.com 703-868-9427
윤 조셉 변호사 www.yoonfirm.com 교통법, DUI/DWI, 형법, 개인상해 재판전문 변호사 703-260-6060	에스터'S 키친 케이터링 전문 www.estherkitchen.com 최은숙 (에스터) 571-215-3232	영스 노인 복지센터 오전/오후반, 차량운행, 2식사 및 간식제공, 질 높은 다양한 클래스, 주정부 보조 및 저렴한 개인 비용 703-988-2044	Landscape 정원 관리, 나무 자르기 하상욱(요한) 703-609-1011	민 자동차 정비 703-869-9691

성사·교리·하상학교 안내

성사안내
 · 고해성사: 미사시작 30분전
 · 병자영성체: 매주 첫 금요일
 · 유아세례: 작수 달 넷째 주일 (주보공지)
 · 혼인성사: 6개월전 신청 (교육 필수)
 · 병자성사: 위급하기전 연락 요망

예비자 교리(교리 기간 8개월)
 · 주일: 11시 40 분 (하상관)
 · 화요일: 오후 8 시 (하상관)
 예비자나 전입자 또는 방문자는
 성당 입구 봉사센터 또는
 사무실에서 등록을 받습니다.

하상한국학교 (Hasang Korean School)
 · 정규학기: 일반 Public School 과 동일, 매주 토요일
 · 여름학기: 매년 6월에 개강
하상성인학교 (Hasang Adult School)
 · 불학기, 가을학기 운영 / 매주 화, 금
하상 한국학교 / 성인학교 연락처
 · (703) 968-3070

미사시간 (MASS SCHEDULE)

주일미사	· 08:00 AM · 10:00 AM · 11:40 AM (학생 / 영어미사) · 03:00 PM (우드브릿지 한국어미사) St. Elizabeth Ann Seton Catholic Church · 05:00 PM (청년미사)
토요일 저녁	07:30 PM
주일학교 수업	주일 10:00 AM
월 & 목	06:00 AM 화 & 금 07:30 PM
수요일	11:00 AM 토요일 07:00 AM



천주교 성 정 바오로 성당
ST. PAUL CHUNG CATHOLIC CHURCH
 Catholic Diocese of Arlington, Virginia

4712 Rippling Pond Dr., Fairfax, VA 22033
 Tel (703)968-3010 | Fax (703)968-3013
 Home Page : www.stpaulchung.org
 E-Mail : sthasang@gmail.com

PARISH STAFF 주임신부 백인현 (안드레아) | 보좌신부 성원경 (대건 안드레아) | 사도회장 이용현 (요셉)